광주 수능 1등급 비율 전국 1위

전남도 8·9등급 크게 줄어 전년대비 상승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성적 분석

5년 연속 수능 전국 1위를 기록해 온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1등급 비율 전국 최고의 성적을 기록, '실력광주'가 재확인 됐다.

전남지역은 전체적인 성적이 중하위권에서 머물렀으나 전년대비 상승세를 보였으며 장성과 강진 등 일부 군지역 학교의 선전이 돋보였다.

◇광주=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10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언어, 외국어, 수리가·나 등 전 영역에서 1등급(상위 4%)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해 공개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능 성적에서도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었다.

광주의 언어영역은 1등급 비율이 5.3%로 16개 시·도 중 1위였으며, 제주(4.8%), 대구(4.7%)가 그 뒤를 이었다. 수리가에서는 서울(5.7%)에 이어 2위(5.5%)에 올랐으며, 수리나는 7.3%로 1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또 외국어 영역에서는 서울(7.1%)에 이어 2위(5.7%)의 성적을 냈다. 전국 평균 1등급 비율은 언어 4.2%, 수리가 4.1%, 수리나 5.1%, 외국어 4.9%에 불과했다.

광주는 시·도별 표준점수(평균)에서도 전 영역에서 광역시 중에선 1위, 16개 시·도 중에선 제주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전국 232개 지자체 중 1등급 비율 상위 30개 시·군·구에는 광주 남구가 전 영역에 포함됐으며, 북구는 언어와 수리가, 서구는 수리나 등에 이름을 올렸다.

표준점수 상위 30개 시·군·구에서도 전 영역에서 광주 서구와 남구, 북구가 동구는 언어, 수리나, 외국어 영역이 들었다.

광주는 시·도별 전년 대비 1, 2등급 비율 증가에서는 언어와 외국어 영역이 각 0.6%포인트와 0.7%포인트가 증가했으며, 수리가·나 영역은 각 -3.2%포인트와 -0.3%포인트가 감소했다.

■ 시·도별 1·2등급 비율 (단위:%)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광주	5.3	10.3	5.5	7.5	7.3	8.2	5.7	7.5
전남	3.6	7.4	2.8	5.2	4.1	5.9	3.2	5.2
서울	4.6	8.4	5.7	7.2	6.7	6.9	7.1	7.0
부산	4.2	8.8	3.8	6.3	4.7	6.8	4.8	6.4
대구	4.7	9.4	4.1	5.8	5.4	6.7	5.5	6.9
인천	3.0	7.0	2.6	4.9	2.7	4.9	2.4	4.5
대전	4.5	8.8	3.1	5.2	5.1	5.6	5.6	6.7
울산	3.2	7.0	3.3	5.9	3.2	5.3	3.0	4.7
경기	4.3	8.1	4.7	7.7	4.8	6.2	4.9	6.1
강원	4.1	7.9	3.7	5.3	4.0	5.3	4.1	5.6
충북	3.9	8.3	2.1	3.3	4.9	5.3	3.5	5.6
충남	4.0	8.0	3.9	5.1	4.5	5.4	4.0	5.1
전북	4.5	8.9	3.0	3.6	6.1	6.6	4.5	5.7
경북	3.7	7.9	3.3	5.5	4.5	6.4	3.7	5.6
경남	3.1	7.2	2.8	4.8	3.8	5.4	3.0	4.8
제주	4.8	11.1	4.1	8.3	6.8	9.0	5.4	7.9
전체(기준)	4.2	8.2	4.1	6.1	5.1	6.3	4.9	6.1

◇전남=지난해 16개 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렀던 전남지역 일반계고교는 2010학년도에서 성적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1등급 비율은 전년보다 2~3단계 상승한 12~13위의 성적을 나타냈다. 시·도별 표준점수에서 언어와 외국어, 수리가는 각 13위, 수리나는 8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특히 '공부 못하는' 8·9등급 학생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언어는 전년대비 -0.5%포인트가 낮아져 감소율 6위에 올랐으며 수리나는 -1.0%포인트로 3위, 외국어는 -0.6%포인트로 4위를 기록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승호 장학관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딛고 전년에 비해 8·9등급 학생이 줄어들고,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우수학생이 늘어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 기숙사 최첨단 경비 시스템

'스파이더맨 절도범'엔 무용지물

15분간 두곳 털어

'스파이더맨 절도범'에게 전남대 기숙사의 최첨단 경비 시스템을 뚫고 침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다.

평소 헬스를 즐기던 박모(28·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지난달 7일 오전 6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기숙사에 설치된 길이 80㎝의 추락방지 철제 난간 새시를 붙잡고 한층 한층 올라갔다. 범인의 키는 172㎝, 층간 간격은 1.5m. 아무런 장비도 없이 아래층 발코니 난간을 딛고 맨손으로 위 난간을 붙잡고 5층까지 올라갔다.

기숙사 현관 출입문에는 지문인식 시스템이, 각 방에는 디지털 도어록이, 기숙사 건물 내·외부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박씨가 15분간 턴 기숙사는 4층과 5층 등 모두 2곳. 훔친 돈은 4만원이 전부였다. 난간 창문으로 가던 박씨는 때마침 방에 들어온 여대생의 비명을 듣고 방 출입문으로 도망쳤다.

박씨는 기숙사 1층 현관에서 경비원에게 붙잡혔으나 단 번에 뿌리치고 달아났다가 14일 광주북부경찰에 검거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대학교 기숙사를 터는 것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쉬웠다"고 진술했다.

북부경찰은 박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전남대 기숙사 1층 입점 상가 세 곳이 또 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운찬 〈8086〉 김종두

방문간호사 합격자 순위 바꿔 부정 채용

보건소 직원 2명 입건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채용과정에서 경력이나 자격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일부 합격자들의 순위를 바꾼 공무원 2명이 적발됐다.

광주광산경찰은 14일 광주시 모 구청 보건소 직원 이모(여·57·당시 보건직 6급)씨와 김모(여·42·보건직 7급)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2월께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인력을 채용하면서 경력증명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일부 응시자들에 대해 마치 서류를 갖춘 것처럼 공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 응시자들의 주장 만을 토대로 합격자 순위를 뒤바꿈으로써 상위권 응시자 3~4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불법 노래방 업주 등 3명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14일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 박모(여·55)씨 등 3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과 일곡동 일대에 노래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제공하거나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하객행세 '슬쩍'

목포경찰은 14일 예식장에서 상습적으로 하객들의 손가방을 훔친 김모(41)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께 목포시 모예식장에서 하객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틈을 이용해 의자 위에 올려 놓은 핸드백을 갖고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스님행세 공갈

광주동부경찰은 14일 스님행세를 하며 불교 관련 상점에서 종업원을 위협해 불교 물품을 들고 나온 김모(51)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한 상점에서 종업원 김모(47·광주시 서구 쌍촌동)씨에게 자신의 가방안에 있던 둔기를 보여준 뒤 염주 등 3만6천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랑 나누미 자선바자 14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청과 현대백화점 광주점 주최로 열린'사랑 나누미 자선바자회'에서 시민들이 의류와 잡화 등을 구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복요리 조심' 여수서 중독 잇따라

복요리를 먹고 중독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0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한 식당에서 복요리를 먹은 정모(41)씨가 호흡곤란과 구토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정씨는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달 20일에는 같은 섬에 정박한 배에서 복요리를 먹은 선원 2명이 중독돼 이 중 한 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봄이 되면서 전남 인근 해역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복어를 무자격자가 요리하면서 복어의 알집과 내장, 간 등에 있는 테트로톡신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스타크' 프로게이머들 승부조작

불법 베팅사이트와 연계 져주기 게임

대표적인 온라인게임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이 불법 베팅사이트와 연계돼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한국e스포츠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가 전직 프로게이머, 또는 e스포츠업계 출신의 불법 베팅사이트 브로커와 접촉해 고의로 게임을 져주는 등 승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프로 스포츠 중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이 가능한 스포츠 토토와 특별법으로 허용된 경마, 경륜, 경정 등이 합법적인 베팅이지만, 인터넷 사설 서버를 활용한 베팅 사이트는 엄연한 불법이다.

e스포츠계에서는 10명 안팎의 전현직 선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직 선수가 불법 베팅 사이트의 브로커 역할을 하며 현직 선수에게 접촉해 승부 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는 100명이며, 이 중 광주·전남 출신은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가수 비 20억 횡령혐의 피소

쌍나팔

○…한류스타 가수 비(본명 정지훈·28)가 사업상 금전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결과에 관심.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지난 6일 "정씨 등이 가장납입 등을 통해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정씨를 비롯한 패션디자인업체 J사 주주 8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

○…J사 측은 "주주들이 가장납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조만간 이씨를 불러 조사한 뒤 필요하면 정씨를 포함한 J사 주주들도 소환조사할 계획. /연합뉴스